



쏟아 IT 정보

해외여행 '로밍'만 챙겨도 편해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고객들을 위해 로밍 할인 프로모션, 할인쿠폰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나왔다.

- SKT
면세점 온·오프라인 할인
- KT
티빙 석달 무료·데이터 추가
- LGU+
공항·여행지 제휴 이벤트
- 카카오페이
여행 할인, 보험도 출시

가하면 최대 4명의 가족이 로밍 데이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SK텔레콤이 지난해 6월 개시한 서비스다.

KT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 18일까지 드라마나 예능을 챙겨 볼 수 있도록 로밍 상품 '로밍 데이터 함께ON' 가입자를 대상으로 티빙 베이직 3개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로밍 데이터 함께ON'은 데이터 로밍을 공유할 수 있는 요금제로 가족이 아니더라도 일행 중 한 명만 서비스에 가입하면 최대 5명까지 추가 요금 없이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공식 온라인 채널 KT닷컴을 통해 '로밍 데이터 함께ON'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로밍 데이터를 최대 3GB 추가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편, KT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멤버십 '달.달.혜택'을 통해 캐나다 커피 체인 '탑홀트' 무료 커피, 동남아시아 최대 교통 배달 앱 '그랩' 할인, 복합 문화공간 '백야드'의 무료 레슨 등 혜택을 제공한다. KT는 데이터 2GB, 통화 100분, 밀리의 서재 1개월 구독 제공 등 혜택 종류도 늘렸다.

LGU+는 '로밍패스'의 혜택을 강화했다. 데이터 사용량과 사용 가능 기간을 늘린 로밍패스는 한번 가입하면 30일 동안 전 세계 83개국 어디서나 자유롭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로밍패스 출시 혜택으로는 유플닷컴에서 가입하면 누구나 데이터 1GB 추가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국내 5G 월정액 9만5000원 이상 고객은 데이터를 2배 더 받을 수 있다. 또 만 34세 이하 청년 고객에게 2GB 무료 충전 혜택과 인천·김해 공항 로밍센터에서 간식이 담긴 '남양키트'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남양키트를 SNS에 인스타그램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제휴 혜택도 늘어났다. 국내 공항 혜택도 공항

라운지 등 공항서비스를 최대 40% 할인, 신라면세점 인천공항점에서 최대 15만 5000원 할인, KB국민은행인천공항 환전 수수료 50% 우대 등이 있다.

카카오페이, 휴가철 일본여행 할인 행사
카카오페이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본을 방문하는 카카오페이 사용자들을 위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오는 30일부터 9월 22일까지 일본 내 편의점 로손에서 카카오페이머니로 500원 이상 결제하면 5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또 도쿄 나리타 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카카오페이머니로 1만원 이상 결제하면 1인당 1회 500원을 할인하는 이벤트

도 진행 중이다. 10월 11일까지 일본 다이마루 마쓰자카야 백화점 내 모든 매장에서 카카오페이머니로 2만원 이상 결제 시 5천원을 1인당 한차례 할인받을 수 있다.

그밖에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해외여행보험 출시 1주년을 맞아 감사의 의미를 담은 재가입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할인 혜택은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해외여행보험이 출시된 작년 6월 이후 현재까지 가입한 적이 있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기간 제한 없이 1인당 한번 재가입 시 보험료를 추가 5% 할인받을 수 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공항 이용객들이 출국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네이버 지도앱 '운전점수' 분석

네이버가 지도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통해 '운전점수' 기능을 선보였다.

운전점수는 네이버 지도 내비게이션으로 경로 안내를 받으며 주행한 기록을 분석해 이용자의 운전 습관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다.

주행 중 ▲과속 거리 ▲급가속·감속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운전점수는 주행이 끝날 때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된다.

이용자는 운전분석 페이지에서 운전점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운전분석 페이지를 통해 운전점수를 비롯해 점수 변화 그래프, 이용자 전체 평균 점수, 총 운전 시간 및 주행거리 등 다양한 지표를 살펴볼 수 있다

이용자는 운전점수를 바탕으로 자동차보험 할인도 받을 수 있다. DB손해보험은 네이버 지도 운전점수를 연계해 보험료를 할인하는 '안전운전 할인특약'을 오는 9일 출시했다.

/연합뉴스

LGU+, AI 분석 요금제 추천

LG유플러스가 고객의 사용 패턴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적합한 요금제를 추천해주는 '익시 통신 플래너'를 디지털 채널 '유플러스닷컴'과 고객센터 앱 '당신의U+'에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LG유플러스의 자체 개발 AI 기술 익시를 활용한 익시 통신 플래너는 고객 관심사, 할인, 사용 기간 등 5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고객의 사용 패턴을 분석해 현재 사용 중인 요금제가 적절인지 판단하는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결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용이 많은 고객에게는 OTT 전용 요금제를 안내하는 식으로 개인에게 꼭 맞는 요금제를 추천한다.

맞춤형 혜택 추천 기능도 내달 시작한다. 이용하고 있는 혜택뿐 아니라 놓치고 있지만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혜택도 알려줄 예정이다.

/연합뉴스

새 갤럭시 한국이 제일 저렴할 듯

삼성전자가 오는 10일 공개하는 갤럭시 폴더블 스마트폰의 국내 출시가를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갤럭시Z 플립 6 256GB 모델은 148만5000원, 갤럭시Z 폴드 6 256GB 모델은 222만9700원에 각각 국내 판매가가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모델인 플립5·폴드5(256GB 기준)가 139만9200원, 209만7700원에 각각 출시됐던 것에 비해 8만~13만원가량 오른 가격대다. 512GB 모델의 가격 상승 폭도 비슷한 선으로 예상된다.

새로 출시되는 폴더블폰 전 모델에는 웹캠 스냅드래곤 3세대를 탑재하고 카메라, 배터리 등 사양을 업그레이드한 것이 가격 상승 요인이 됐다는 업계 분석이다.

/연합뉴스

'도요새에게 배우는 공존과 배려'

국립광주과학관 '...바다톡톡' 10일, 전남대 김준 교수 강연



김준 교수

해 도요새가 사는 바닷가 생태와 특징 그리고 도요새는 왜 다양한 부리를 가졌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다음 강연은 오는 24일에 열리며 업사이클링 드림캐처 만들기 체험과 채지연의 '우리가 만드는 지속가능한 지구'에 대한 강연이 이어진다.

2024 수요일엔 바다톡톡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에서 150명 선착순 온라인 사전에 약 후 참석 가능하며,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10일 오후 6시 30분 국립광주과학관 상상홀에서 '2024 수요일엔 바다톡톡' 세 번째 강연을 개최한다. '2024 수요일엔 바다톡톡'은 한국해양재단(이사장 문해남)과 광주과학문화협회(회장 김대영)가 함께하는 강연으로 지난 12일부터 오는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수요일에 열린다. 국립광주과학관은 해양을 주제로 하는 다채로운 강연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강연은 '도요새에게 배우는 공존과 배려'라는 주제로 전남대학교 김준 교수를 초청

상반기 모바일 게임 강자는, 中 '라스트 워'

상위 10개 게임 중 5개가 외국산 게임... 2위 '리니지M'

올해 상반기 국내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 상위 10개 게임 중 외국산 게임이 1위를 비롯해 5개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앱마켓 분석업체 센서타워가 9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국내 모바일 게임시장 결산 보고서'를 보면, 중국 게임사 퍼스트터브가 서비스하는 '라스트 워: 서바이벌'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을 누르고 올해 상반기 국내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 1위에 올랐다.

이어 조이넷게임즈의 '버섯커 키우기'가 3위, 센추리 게임즈의 'WOS: 화이트아웃 서바이벌'이 5위, 슈퍼셀의 '브롤스타즈'가 7위, 드림 게임즈의 '로얄 매지'가 8위를 차지하며 총 5종의 게임이 매출 순위 상위 10위에 들었다.

센서타워는 외산 게임의 매출 순위 장악이 201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라스트 워'는 출시 이후 전 세계적으로 6억 달러(약 83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는데, 한국 시장 매출 비중은 26%로 미국(30%) 다음으로 많았다. '버섯커 키우기'의 경우 전체 매출 3억5000만 달러(약 4800억원) 중 한국 시장 매출이 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같은 추세는 퍼블리셔별 매출 순위에도 영향을 미쳐 해외 퍼블리셔 5곳이 매출 상위 10위권에 들었다. 지난 10년간 상반기, 하반기를 통틀어 처음 있는 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 건수는 지난해 대비 소폭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한국 시장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900만 건 줄어든 1억9000만 건을 기록했다. 이 중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의 다운로드는 17% 감소한 반면,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17% 증가했다.

/연합뉴스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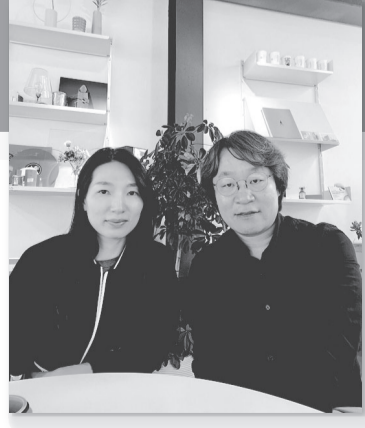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